성파 스님 "풍랑 견디는 큰 배 돼야"

영축총림 통도사 8월 27일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
전국 총림도 해제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27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법어를 내리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병오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정진을 이어간 대중을 격려하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굳건한 자세를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27일 설법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상에 오른 성파 스님은 "자유롭고 한가하며 바쁜 것이 다 한때"라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큰 어선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어 "어선이 풍랑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라며 "수행자 역시 혹한과 혹서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풍취부동 천변월(風吹不動 天邊月)'을 언급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이어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곧 극락세계"라고 설파했다.

이번 통도사 병오년 하안거에는 보광선원 등 비구 선원에서 84명, 동국제일선원 등 비구니 선원에서 49명이 정진을 마쳤다. 아울러 시민선원 등 재가자 40명과 율원, 강원 등 사중 소임 대중 141명을 포함해 총 314명의 사부대중이 하안거를 원만히 회향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8월 27일 대웅보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해제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현묵 스님은 해제법어에서 유난했던 폭염 속에서도 정진의 원력으로 안거를 원만하게 회향한 대중을 격려하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 어록을 들어 수행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현묵 스님은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땅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망상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며 "번뇌가 즉 보리라 했듯 망상도 우리의 자성을 한순간도 여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안거 내내 화두와 씨름하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길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오늘 해제를 맞았다"며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줄 아는 대중들이 이제 산문을 나선다"고 말했다.

또한 만행길에 오르는 수행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 주며 풍류 없는 적막한 곳의 풍류임을 깨달아 활발하게 만행하라"며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이 충전되면 다시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수행의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총림 대중은 지난 5월 31일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 선원을 비롯해 율원·강원·염불원 등 각 수행처에서 100일 동안 정진을 이어왔다. 하안거 해제와 함께 49일 동안 이어진 백중 기도도 회향했다. 대웅전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대웅전 앞마당에서 반야용선을 앞세운 요잡의식을 진행하며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명 대사 정신, 음악으로 되살리다

대둔사, 9월 12일 산사음악회 '뮤지컬 사명대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이 뮤지컬 무대에서 되살아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300여 개의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객들의 소원을 함께 밝힌다.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는 9월 12일 오후 5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뮤지컬 사명대사 하이라이트 쇼'를 개최한다. 공연에 이어 '대둔사 소원풍등축제'도 마련해 역사와 음악, 자연과 소망이 어우러지는 산사문화의 장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대둔사가 지닌 호국불교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문화예술로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뮤지컬 갈라쇼에 이어 올해는 공연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사명 대사의 삶과 호국정신을 보다 풍성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명 대사(1544~1610)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며 국난 극복에 앞장선 대표적인 고승이다. 대둔사는 사명 대사가 의승군을 훈련시킨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는 뮤지컬 극단 야성이 준비한다. 뮤지컬 '사명 대사'의 주요 곡과 장면을 하이라이트 쇼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뮤지컬 '사명 대사' 주제곡을 비롯해 '선조와 동인 서인들', 도요토미의 솔로곡 '나는 전쟁을 원해', '일어나라 승병들아!', 사명 대사의 솔로곡 '대마도에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공연은 지난해보다 장면과 배우를 두 배로 늘리고 의상과 전쟁 장면 등을 새롭게 더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진구 극단 야성 단장이 곡 해설을 맡아 각 장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공연의 흐름을 관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를 수놓는 '소원풍등축제'가 이어진다.

주지 서원 스님은 "사명 대사께서 대둔사에서 이루신 호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그 뜻을 되새기고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482-3807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AI로 사찰 운영·불교교육… 혁신 이끈다

지역 불교人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축적된 사찰 기록 AI 분석 · 활용
행정 연속성 확보, 매뉴얼화 용이
"AI 활용 핵심, 기술 아닌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사찰의 모든 자료가 먼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사찰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AI가 산업과 교육을 넘어 일상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전통사찰의 종무행정과 불교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심에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사진〉이 있다.

중현 스님은 최근 증심사가 축적해 온 회보와 각종 행사·사업 기록을 생성형 AI와 연계해 종무행정에 활용하는 한편,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수강생들의 학습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찰의 기록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검색·분석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AI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은 '사찰 운영의 전문성'이다. 오늘날 사찰은 수행과 신행뿐 아니라 행정과 신도관리, 문화·복지사업 등 운영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시스템과 업무 노하우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사회의 사무·행정과 비교하면 불교계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행정과 관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사찰의 행정과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현 스님이 주목하는 것은 AI 자체보다 '축적된 기록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증심사가 그동안 진행한 팥빙수 나눔사업의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AI가 빠르게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곳을 찾아 다음 사업을 기획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I는 사찰 종무행정의 '업무 단절'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문제를 기록과 데이터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현 스님은 "AI를 활용하면 사찰 행정의 연속성과 매뉴얼화, 기록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심사의 기록 축적은 불교교육에서도 이어져 왔다. 중현 스님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의 때마다 자체 제작한 교재와 그동안의 법문을 정리해 모두 6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영상과 녹취, 출판으로 이어진 강의 기록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교교육의 기초자료로 확장되고 있다. 중현 스님은 앞으로 AI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찰 업무의 일상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AI를 쓰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평소 사용하는 모든 도구 안에 AI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찰도 그에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파계사, 국가유산 원통전 상량식

420여 년 만에 해체보수



대구 파계사(주지 법준 스님)는 8월 27일 원통전 해체보수 현장에서 '파계사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번 상량식은 일반적인 상량 방식과 달리 상량문을 상량함에 넣어 봉안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원통전 기존 도리에 이미 묵서로 상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량문을 별도의 상량함에 봉안한 것이다.

상량문 봉독에 이어 법준 스님이 상량함을 봉안하고 상량보를 올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관음정근을 함께하며 원통전의 안전한 보수와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발원했다.

파계사 원통전은 1605년 공사를 시작해 1606년 중창을 마친 건물로, 2014년 보물로 지정됐다. 2021년 해체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2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수는 중창 이후 약 4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해체보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철원 심원사, 자비나눔으로 백중 회향

8월 23일, 400여 명 동참



철원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는 8월 23일 '병오년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청현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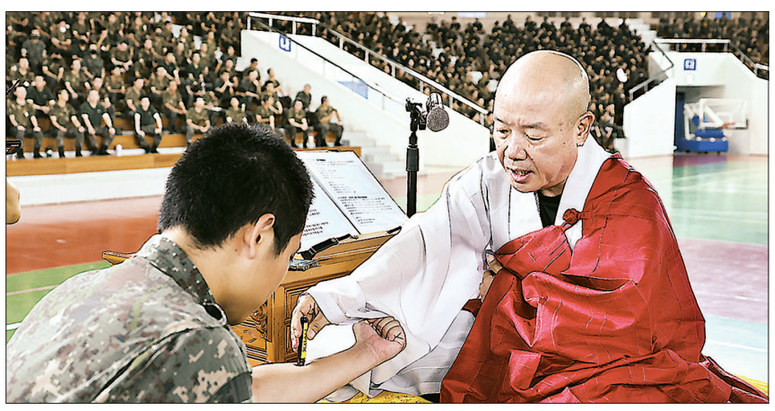
청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백중기도는 모든 생명의 업장을 참회하고 품어 안으며, 모두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자 지극한 효의 실천이며 수행정진"이라고 강조했다.

심원사는 법회에 앞서 지역 내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소방서, 경로당 등을 찾아 떡과 국수, 간식 등을 전달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 장병 2000명 수계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서
수계지원금 · 정기후원금 전달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이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연무관에서 열린 수계대법회에서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봉서사 주지)이 육군훈련소 장병 2000명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전하며 군 생활의 바른 마음가짐과 불자로서의 삶을 당부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은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혜총 스님) 연무관에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선효 스님(소령 진급예정)이 인례법사를 맡고, 육군교육사령부 호국법련사 향산 스님(대위)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계사로 법석에 오른 연수 스님은 "수계는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며 "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나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 생활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삼귀의와 오계를 가슴에 새기고 판단한다면 책임감 있고 성숙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병들은 참회를 통해 지난 허물을 돌아본 뒤 연비의식에 참여하고 삼귀의를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청정한 승가에 귀의할 것을 서원했다. 이어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계의 증표인 수계첩을 받고, 수계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낼 것을 발원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은 군 포교 활성화와 장병들의 신행생활 지원을 위해 호국연무사에 수계지원금 1000만원과 육군훈련소 정기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산사 신도회, 고영섭 교수 초청 특강

8월 23일, 전북불교회관서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신도회(회장 한광수)가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8월 2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영섭 교수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사상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신라 원효 대사의 핵심 사상이자, 생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실천 불교의 사표가 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평생을 두고 강조해 온 가르침이다.

고 교수는 "귀일심원은 인간 본래의 순수한 마음이자 우주의 근본인 일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요익중생은 일심의 근원을 깨달은 바탕 위에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